

“포교로 참 행복 찾고 싶어요”

부산·울산 포교사 1차 합격생, 통도사서 연수



제19회 포교사 자격고사 1차 합격자 중앙연수' 입재식이 4월 12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부처님의 불법을 익히고 전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울산경남지역단의 예비합격자들이 포교사로서의 첫걸음을 뒀다. 제19회 포교사 자격고사 1차 합격자 중앙연수' 입재식이 4월 12일 통도사(주지 원산) 설법전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부산과 울산의 포교사 예비 합격자 300여 명이 참석해 1박 2일의 연수를 받았다.

지난 2월 조계종이 주관하는 포교사 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4개월의 연수와 마지막 단계인 면접을 7월

말에 앞두고 있다. 연수기간에는 교 육참여 여부 등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를 받으며, 8월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면, 9월 포교사의 자격을 공표하는 품수식이 거행된다.

이번 행사가 의미 있는 이유는 그동안 조계종 포교사단 예비 포교사 연수가 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시행되었으나, 올해 부산·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배려해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통도사에서의 교육은 '조계종단의 이해', '불교의식 이해·집

전', '불교복지론' 등 불교의 주요 이론과 더불어 포교 발원문 작성, 108배 등의 수행으로 포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졌으며 공식 일정 외 예비 포교사들의 자발적인 철야정진기도가 이뤄졌다.

주지 원산 스님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로 포교사 여러분은 포교 이전에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 느끼는 생로병사의 문제는 어떠한 부귀영화와 학식으로도 해결할

지역 포교사 배려 별도 진행

불교복지론 강의·철야정진 등

수 없는 것으로 ‘나’를 아는 것만이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도 왕자의 신분, 학식 등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버리고 출가하셨다. 여러분들께서도 외부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는 포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계는 윤리이다. 계를 실천한다는 것은 인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니, 계를 항상 유념하고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사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 또한, 불교 인연은 연기법이다. 1차

시험을 통과하고 통도사에서 교육 받는 것도 전부 여러분이 열심히 수 학한 결과이다. 시간, 신심을 내어 포교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좋은 인연과 좋은 곳으로 안내할 것이다”고 축원했다.

예비 포교사 서유정(48)씨는 “포교사가 되는 길은 행복한 나라 찾기 위한 과정이다. 자식, 남편 등 일상 속에 얽매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재능보시를 할 수 있는 포교사의 활동으로 참다운 행복을 찾고 싶다. 더불어 불교에 귀의하고자 하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안내자가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송연(68)씨도 “포교사는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불법을 전하는 일이라 말로 나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행복을 전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종 포교사의 자격을 획득한 이들은 지역 내에서 각자 원하는 팀을 선정 포교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병원, 사찰, 교정시설, 병원, 노인복지 시설 등 부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청소년 포교, 문화 재능 보시, 봉사, 염불 등 다양한 분야로 불법을 전할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범어사 보제루 금강계단 현판식

600여 불자 수계법회도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 보제루의 금강계단 현판이 새롭게 걸렸다. 범어사는 4월 13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범어사 율원장 수진 스님, 범어사 한주 무비 스님 등 20여 대덕 스님들과 6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범어사의 보제루는 1700년대에 세워진 누각으로 일제 강점기에 개 방형의 보제루가 일본식 사찰형태로 변형된 것을 안타까워한 故동산 스님이 1964년에 부분 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2010년에는 단층형태를 누각으로 변경하는 불사가 진행됐으며, 작년 7월 모든 불사를 성만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



범어사 금강계단 현판식이 4월 13일 보제루에서 열렸다.

추게 됐다.

범어사 보제루는 석계쪽으로 범어사 현판이, 종전쪽으로는 보제루와 금강계단의 현판이 걸려 있었으나 금강계단의 현판이 보제루의 크기에 비해 왜소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현판식을 추진하게 됐다. 기존 금강계단의 현판인 동산스님의 글

씨를 확대하고, 과거 해체한 보제루 대들보의 판자에 이를 새겨 현 금강계단의 현판을 완성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600여명의 불자들을 위한 보살계가 거행돼 경건하면서도 뜨거운 수계법회가 금강계단에서 펼쳐졌다.

김나영 객원기자

“맑은 눈으로 한반도 통일 기원”

해동 용궁사 남북평화통일 천일기도 입재

부산의 대표적인 수상법당인 기장 해동용궁사(주지 정암)가 제58회 용궁대제 및 남북 통일기원대법회를 4월 14일에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용궁사 주지 정암 스님,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 여수 항일암 주지 우석 스님 등 20여명의 대덕 스님과 3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 남북통일기원문 낭독을 통해 나라와 불자의 평안을 발원했다.

적전사 주지 남륜 스님은 기원문에서 “국제사회는 냉혹하고 잔인하다. 타국의 아픈 상처를 등한시하고 비인류적인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

어나고 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로서 과거를 버리고 맑은 눈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주지 정암 스님은 “용왕기도가 올해로 58회째를 맞았다. 또한, 이렇게 통일기원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은 모두 부처님과 신도님들 덕분이다. 과거 사찰 운영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용궁사 불자들을 위한 포교의 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었다.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오늘 이 법석에서 서니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



남북평화통일 천일기도 입재 범문 정면

남은 “용궁사는 아무리 이끌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용왕님이 초청해야 가능하다. 염불, 참선, 수행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대덕 스님들이 오늘 한 법석에 모이셨다. 앞으로도 용궁사의 발전과 더불어 신도님들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첫회를 맞은 남북평화통일 천일기도는 2017년 1월에 회향하게 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영덕 사암聯 ‘행복한 문화예술 한마당’

4월 15일 영덕군민회관에서



행복한 문화예술 한마당 축제 모습

영덕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담)는 4월 15일 영덕군민회관에서 지역 사암사찰 주지 스님과 지역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영덕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예술 한마당’ 봄꽃향기 오감제 축제를 가졌다.

회장 현담 스님은 “영덕불교사암연합회 차원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처음 봉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영덕 폐사지 불적답사와 불교현황’ 자료집을 펴내 의미를 더했다.

스님은 “1500여 년의 지역 불교 역사를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대 표적으로 사찰이 창건되어 폐사되고 또한 이어온 현존의 사찰들의 자료를 기록 정리한 ‘영덕 폐사지 불적답사와 불교현황’이란 자료 책을 보여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륜사 법성 스님은 “평등

공존 동체대비사상과 화평 상생 화합사상을 본받아 영덕불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식순에 따라 식전 행사로 범음 범패로 바라춤, 나비춤, 연꽃춤이 선보였고, 봉축법요식이 끝난후 이어 부대행사로 폐사지기와 전시회, 연꽃컵등 및 단주 만들기 시연도 있었다.

2부에는, 문화예술 한마당으로 색소폰연주, 성악, 해금, 클래식 기타, 아코디언 등과 함께 한 즐거운 가요무대로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태고종 대구경북 통합종무원사 개원

종무원장 이취임식도 진행



태고종 대구 경북 통합종무원사 개원식

태고종 대구경북 통합종무원사 개원식이 4월 11일 경북 칠곡군 가산면 대구경북종무원에서 봉행됐다. 1부에서는 부처님 이운 점안과 종사 이운이 제2부 취임법회 순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대구와 경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교구를 이번엔 통합하면서 관장 스님이 대구경북 종무원장으로 선출됐다. 종무원장 관성 스님

은 환영 취임사에서 “소통과 화합의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 경북교구 종무원이 재탄생했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무심사 무심선원 수록용왕대제

달성군 무심사 무심선원(선원장 무심)은 4월 13일 제 7회 낙동강 방생 및 수록용왕대 대법회를 열었다.

세원사 회주 천우 스님을 증명법사로 한 이 행사는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천우 스님은 “수록용왕제는 물에나 육지에 있는 고혼과 아귀에게 방생을 공양하는 의식으로 무주고 혼 영가천도에 동참하는 분은 무량 공덕 지어 가정 편안하고 세계생생 사로 한 이 행사는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엄장 씻고 극락왕생하소서”

삼광사 부처님오신날 기념 점등식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 등 점등식을 4월 13일 삼광사 극락전에서 봉행했다.

극락왕생 염원과 함께 ‘아미타불’을 일제히 염송한 삼광사 스님들과 500여명의 불자들은 점등한 영가등을 보며 선조의 영가는 물론 호국을 위해 희생된 영가의 넋을 위로하고 나아가 국가 수호와 평화를 발원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부처님은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해와 달을 볼 수 있다고 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은 물론 선조들의 공덕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선망부모 조상님들이 지었던 모든 업장을 오늘 소멸하여 선조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법문을 전했다. 삼광사 교무 형선 스님은 “오늘 삼광사 사부대중의 지극한 효심으로 밝히는 영가등으로 순국선열, 임아



4월 13일 열린 삼광사 영가점등식

영가, 정전과 기아로 죽은 영가와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극락의 땅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발원문을 낭독했으며, 주지 무원 스님과 불자들은 극락전에서 탑돌이를 하며 점등식 회향을 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Yeon Deung Hoe 燃燈會

불기2558(2014)년 4. 25(금) ~ 27(일)

연등행렬
4월 26일 토요일
오후 7:00 ~ 9:30
종로거리
(동대문▶조계사)

전통문화마당
4월 27일 일요일
낮 12:00 ~ 오후 7:00
조계사 앞 길

대중교통 : 조계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 종로 지하철 1호선 종각역
홈페이지 : www.연등회.kr / www.LLF.or.kr

